

# 『심씨를 위해 지은 시』의 보조적 인물 ‘장 파총’ 고찰

홍진옥\*

- I. 서론
- II. 작품 서사 단락 분석
- III. ‘장 파총’ 인물 분석
- IV. 결론

## <국문초록>

본고는 김려(金鑣)가 부령(富寧)과 진해(鎭海)에서 보낸 10년간의 유배 생활의 경험을 바탕으로 창작한 장편서사시 『장원경의 처 심씨를 위해 지은 시』(古詩爲張遠卿妻沈氏作)의 서사를 분석한 후, 작품에서 여주인공 방주(蚌珠) 못지않게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보조적 인물인 ‘장 파총(張把摠)’의 특징에 대해 고찰한 것이다.

『심씨를 위해 지은 시』는 작품의 후반부가 결락된 채 전해지고 있는데, 현재 남아 있는 부분의 서사는 여섯 단락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번째 단락은 『공작동남비(孔雀東南飛)』의 서두와 같이 『시경(詩經)』의 흥(興)의 수법을 사용하여 작품의 전체적인 주제를 암시하는 도입부이고, 두 번째 단락부터 다섯 번째 단락까지는 현재의 시점에서 등장 인물들을 소개하고 이들 인물을 중심으로 ‘양반과 천민의 결혼’이 성사되어 가는 과정으로서 서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핵심부이며, 여섯 번째 단락은 장 파총의 과거가 회상되는 부분으로서, 과거 시점으로 서술된 ‘내부 이야기’를 이루고 있다. 특히 이 부분은 비참한 서민상을 그들의 목소리로 표현하는 ‘이중적 액자 구성’을 취하

\* 서울대학교 국문과 박사수료.

고 있는데, 이로써 장 파충의 지난했던 삶과 당시 서민들의 고달팠던 생활상이 더욱 실감나게 전달될 수 있었다. 아울러 작품에 ‘진지(進支)’, ‘팔자(八字)’, ‘나으리[進賜]’, ‘사포[使道]와 같은 조선식 한자어 표현이나, ‘구리개[銅街]’, ‘용강(龍江)’, ‘양양(襄陽)’, ‘낙산(洛山)’과 같은 조선의 지명을 과감하게 구사함으로써 작품의 사실성을 높이고 있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다음으로 본고에서는 장 파충을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하였다. 먼저 장 파충이 전근대 문학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 가운데 신분과 계급을 초월하는 개성적 면모를 보여준다는 점이다. 장 파충은 신분이나 계급의 장벽을 뛰어넘어 천민들을 사대부와 같은 ‘사람’으로 바라보고 이들을 포용하며, 똑같은 시선으로 그들을 마주하는 인물로서 작품 속에서 설득력 있고 인상적인 방식으로 제시되고 있으며, 이러한 인물의 형상이 뚜렷하게 창출됨으로써 작품의 주제 의식이 한층 더 강화되었다. 다만 작품의 결말을 비극적으로 처리하고자 한 데에서 작가가 현실 인식에 있어 일정 부분 한계를 노출하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장 파충은 불우지사(不遇之士)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도 여기에는 작자인 김려의 삶이 밀도 있게 투영되어 있다는 점이다. 먼저 장 파충이 대대로 명문가 집안의 자제였다가 젊은 시절 우환을 만나 떠돌이 생활을 한 것은, 김려가 인재로서 촉망받던 성균관 유생 시절 ‘강이천(姜彝天)의 유언 비어 사건’으로 갑작스레 유배를 가게 된 것과 유사하며, 장 파충이 중년 시절 어촌 등지로 옮겨 다니면서 고기잡이와 생선 장사를 했다는 설정은 김려가 유배지 진해에서 어가(漁家)에 더부살이를 하면서 직접 고기를 잡았던 것과 관련된다. 뿐만 아니라 방주가 사는 마을을 김려의 아버지인 김재철(金載七, 1737~1799)이 현감으로 지냈던 징계(長溪)로 설정하거나, 장 파충이 어촌 등지를 옮겨 다니는 부분에서는 「적문협(赤門峽)」이라는 5행 14구의 한시를 그대로 실어 놓기도 하였다. 요컨대 「심씨를 위해 지은 시」는 부령 유배 시절 만난 장현령(張玄齡)이라는 실존 인물을 중심으로 서사 구성을 기초하였으나, 여기에 작자 김려의 삶을 형상화하여 대장편으로 엮은 작품이라 할 수 있다.

핵심어: 김려, 「장원경의 처 심씨를 위해 지은 시」, 장 파충, 장현령, 장편 서사한시

## 1. 서론

『장원경의 처 심씨를 위해 지은 시(古詩爲張遠卿妻沈氏作, 이하 『심씨를 위해 지은 시』로 약칭)』<sup>1)</sup>는 조선 후기의 주요 한문학 작가 중 한 사람인 김려(金鑣, 1766~1821)가 부령(富寧)과 진해(鎭海)<sup>2)</sup>에서 보낸 10년간의 유배 생활의 경험을 바탕으로 창작한 장편서사시로서, ‘천민인 백정(白丁)의 딸과 양반인 파충(把摠)의 아들과의 결혼’이라는 자못 과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작품은 후반부가 결락된 채 전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 3,520자 704구에 달하는 압도적으로 긴 편폭을 보여주고 있으며, 중국의 대표적 장편서사시인 『초중경의 처를 위해 지은 시(古詩爲焦仲卿妻作)』<sup>3)</sup>를 기반으로 새롭게 구성한 작품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 이 작품은 편폭, 내용, 형식 등에서 볼 때, 조선 후기 문학사에서 주목할 만한 의미를 지니는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이로 말미암아 이 작품은 이른 시기부터 학계의 주목을 받아 왔다. 작품에 대한 소개와 문학사적 평가는 북한 학계에서 먼저 이루어졌다. 김하명이 김려를 18~19세기의 사회와 문학을 매우 사실적이고 예리하게 보여주는 작가라 일컬으면서, 『심씨를 위해 지은 시』는 당시 사회에서 가장 천대받던 인물들의 인간적인 미의 세계를 밝히고 신분 해방의 지향을 드러낸

1) 이 작품은 김려의 문집인 『灌庭遺藁』 권12, 『補遺集』에 실려 있다. 이후 작품을 인용할 경우 출처는 생략하고, 편이상 구마다 번호를 붙여 제시하도록 한다.

2) 여기에서의 진해는 현재의 경상남도 창원시의 남동쪽에 위치한 진해구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을 일컫는다. 진해는 고려 공양왕 2년(1390)에 牛山縣이란 이름으로 설치되었고, 조선조 태종 14년(1414)에 진해현으로 개칭되었다가 순종 융희 2년(1908)에 창원군에 합병되었다. 창원군은 의창군이 되었다가 다시 창원군이 되고 1995년에 마산으로 편입된다. 이후 2000년에 마산과 창원시 통합되면서, 조선시대의 진해가 현재는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으로 남아 있게 되었다. 김려는 진해 유배시절 어류 백과사전을 창작한 후 『牛海異魚譜』라 하였다.

3) 이 작품은 작품의 첫 구절을 딴 『孔雀東南飛』라는 제목으로 더욱 널리 알려져 있다. 작자 미상의 작품으로 徐陵의 『玉臺新詠』 제1권에 수록되어 있다. 이 시는 姑婦 간의 불화로 빚어진 가정비극을 다루고 있다. 후한 말기인 建安 연간에 廬江府의 하급관리인 焦仲卿의 아내 劉蘭芝는 시어머니의 구박을 받다가 결국 시집에서 쫓겨나고 만다. 친정에 돌아가 있는 동안에 오빠는 난지를 어떤 太守에게로 시집보내려 하자, 난지는 남편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연못에 빠져 죽었고, 이 소식을 들은 남편도 또한 자기 집 마당에 있는 나무의 동남으로 떨어진 가지에 목매어 죽었다는 내용이다.

작품<sup>4)</sup>이라고 평가한 이후, 북한 문학사에서 조선 후기 사회를 현실감 있게 반영하고 인물을 생동감 있게 묘사한 작품이라 언급하며 문예적 가치를 인정하였다.<sup>5)</sup>

한편 남한 학계에서는 조선후기 서사 한시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심씨를 위해 지은 시』가 중요한 작품으로 언급<sup>6)</sup>되는 한편, 1980~90년대에 소품문 연구가 활기를 띠는 과정에서 김려의 한시 작품이 주목되는 가운데 이 작품이 꾸준히 언급되었다.<sup>7)</sup> 이처럼 작품이 지니고 있는 당대 사회의 제문제나 작가의 예리한 시각, 아울러 문예적 성과에 대해 그 중요성과 가치가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면밀한 분석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단독 연구 논문이 2편에 불과하다.<sup>8)</sup> 이는 김려의 문학 작품 가운데 문예적 성과나 문학적 가치가 뛰어난 작품들이 워낙 방대할 뿐만 아니라, 이 작품의 뒷부분이 결락되어 작품의 전모를 온전하게 파악하기 어려웠던 사정 탓인 듯하다.

『심씨를 위해 지은 시』에는 세 명의 인물, 즉 신분이 미천하고 가난하지만 이에 순응하며 신실하게 살아가는 ‘방주의 아버지’, 아름다운 용모와 타고난 성품, 지혜로움과 단아함을 겸비한 백정의 딸 ‘방주’, 사대부가의 양반임에도 불구하고 인물됨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장 파충’이 등장한다. 또한 작품에는 장 파충의 아들이자 방주의 남편인 ‘장원경’이 등장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장원경은 방주와 대비되는 양반의 신분이지만 방탕함을 일삼는 인물로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작품은 본래 방주와 장원경이 결혼을

4) 김하명, 『김려 작품에 대하여』, 오희복 역, 『글짓기 조심하소(조선 후기 김려의 시와 글)』, 거레고전문학선집12, 보리출판사, 2004, 822~832면 참조.

5) 정홍교·박종원·류만, 『조선문학사개관1』, 사회과학출판사, 1986, 254면; 민족문학사 연구소, 『북한의 우리문학사 인식』, 창작과 비평사, 1991, 253면.

6) 임형택, 『이조시대 서사시2』(개정판), 창비, 2013, 360~362면; 박혜숙, 『남성의 시각과 여성의 현실: 서사한시의 경우』, 『민족문학사연구』 9, 민족문학사학회, 1996. 임형택은 진보적인 주제 의식, 사실적인 표현, 민중적 어법 도입을 이 작품의 특징으로 꼽으며 서사시의 귀중한 성과로 평가해야 한다고 하였고, 박혜숙은 하층여성을 인간평등의 관점에서 형상화한 작품이라며 그 문학적 성과를 인정하였다.

7) 박준원, 『담정 김려시 연구』, 성균관대 석사논문, 1984; 김정미, 『담정 시 연구』, 세종대 석사논문, 1985; 이신복, 『담정 김려 한시 연구』, 『東洋學』 18,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1988.

8) 허준구, 『김려의 『古詩爲張遠卿妻沈氏作』 연구』, 강원대 석사논문, 1992; 김수영, 『김려의 <심씨를 위해 지은 시> 연구-〈공작동남비〉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국문학연구』 18, 국문학회, 2008.

하고 이들의 결혼 생활이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을 것이기 때문에, 주인공 방주는 성장 과정, 장 파총과의 만남, 장 파총을 위한 식사 준비 등의 장면에서 작품의 서사와 긴밀한 관련을 맺으며 중요한 인물로 그려지고 있다. 이를 보건대 작자가 편견을 넘어서서 최하층의 천민 여성인 방주를 아름답고 지혜로운 ‘인간’으로 형상화했다는 지적<sup>9)</sup>은 적실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보조적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주인공 못지않게 작품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인물로 ‘장 파총’이 주목된다. 방주는 서술자뿐만 아니라 장 파총의 시각에서 한 번 더 그려짐으로써 아름답고 지혜로운 인물로 입체적으로 형상화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그의 적극적인 구애와 설득으로 방주와 장원경의 결혼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그러므로 장 파총의 과거를 보여주는 장면이 작품 속에 확대되어 나타나는 것을 작가의 문학적 능력의 부족이나 작품의 서사적 한계<sup>10)</sup>로 치부하고 말 문제는 아니다. 그것은 장 파총이란 인물이 유교적 사회의 지배 체제 내에서 어떻게 그러한 의식을 선취할 수 있었는지를 유기적으로 보여주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중심으로 본고는 선행 연구의 성과를 바탕으로 하여 『심씨를 위해 지은 시』를 분석하되, 특별히 장 파총이란 인물이 작품 속에서 어떻게 형상화되고 있는지, 작품의 주제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작업은 조선 후기 문학 작품에 나타난 새로운 인물형을 분석함으로써 당대 문학의 변모상을 이해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김려 문학 세계의 특징을 좀 더 명료하게 해명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라 생각된다.

## II. 작품 서사 단락 분석

『심씨를 위해 지은 시』는 현재 남아 있는 부분만 살펴보았을 때, 구성상 크게 여섯 단락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제1구에서 제18구까지는 도입부로

9) 김수영, 위의 논문, 156면.

10) 정홍교·박종원·류만, 앞의 책, 254면; 임형택, 앞의 책, 361면.

서, 짝을 잃고 외롭게 나는 새를 묘사한 후 새의 말을 통해 작품 전체의 주제를 암시하고 있는 부분이다.<sup>11)</sup>

- |    |       |                                   |
|----|-------|-----------------------------------|
| 1  | 山中有桂樹 | 산 속의 계수나무                         |
| 2  | 托根崇巖路 | 험한 산길에 뿌리 내렸는데,                   |
| 3  | 悲風倏漂搖 | 스산한 바람 갑자기 불어 흔드니                 |
| 4  | 柯葉自相顧 | 가지와 잎 서로 돌아보네.                    |
| 5  | 異鳥來其傍 | 기이한 새 그 곁으로 날아오니,                 |
| 6  | 五采含亨章 | 오색무늬 찬란한 빛을 띠고 있네. <sup>12)</sup> |
| 7  | 紺趾握仁義 | 검붉은 다리 인의(仁義) 간직한 듯하고             |
| 8  | 性和體安康 | 천성이 온화하고 몸도 안락한데,                 |
| 9  | 失侶於雲衢 | 저 높은 하늘에서 짝 잃고서                   |
| 10 | 單飛淚如濡 | 홀로 외로이 날며 눈물 흘리네.                 |
| 11 | 歲寒竹實荒 | 추운 계절 대나무 열매도 영글지 않아              |
| 12 | 啾啾岐道隅 | 갈림길에서 슬피 우는구나.                    |
|    |       |                                   |
| 13 | 寄聲世間人 | 세상 사람들에게 말하노니,                    |
| 14 | 念我恒苦啼 | “항상 괴롭게 울고 있는 나를 생각해서             |
| 15 | 生女凍殺可 | 딸자식 낳으면 얼려 죽일지언정                  |
| 16 | 莫作蕩子妻 | 탕자(蕩子)의 아내는 되게 하지 마오.             |
| 17 | 蕩子不歸周 | 탕자는 해가 가도 돌아오지 않으니                |
| 18 | 冤氣漲空閨 | 빈 규방에 원한이 사무치리.”                  |

추운 겨울 높은 바윗길에 뿌리를 내린 한 그루 계수나무에 홀로 외로이 울면서 날던 기이한 새가 내려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딸자식을 낳으면 방탕한 자의 아내는 되게 하지 말라고 한다. 적막하고 쓸쓸한 서두의 분위기와 기이한 새의 이야기는 이 작품이 비극적 결말을 맞이할 것임을 암시한다. 이처럼 사물에 의탁하여 말하고자 하는 바를 이끌어내는 『시경(詩經)』의 흥(興)의 수법은 「초중경의 처를 위해 지은 시」의 서두를 따른 것이

11) 번역은 오희복 역, 앞의 책; 임형택, 앞의 책을 참조하여 수정·보완하였다.

12) 含章: 아름다운 자질을 지니고 있다는 뜻으로, 『주역』 「곤괘」의 효사 “六三, 含章可貞, 或從王事, 无成有終.”에 나오는 표현이다.

다. 다만 그 작품에서는 ‘동남쪽으로 나는 공작, 5리마다 한 번씩 배회하네 [孔雀東南飛, 五里一徘徊]’라고 압축적으로 제시한 것과 달리, 이 작품에서는 작중의 배경을 추운 겨울의 험한 산길로, 공작을 신비로운 빛을 띤 기이한 새로 설정한 후 새의 처지를 자세하게 서술하면서 작품의 주제적 의미를 좀 더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다.<sup>13)</sup>

제19구에서 제108구까지 90구에 이르는 두 번째 단락은 본격적으로 주인공 방주와 그의 아버지를 등장시키고, 방주의 가족을 소개하는 부분이다. 방주의 집안은 대대로 백정이라는 천한 신분이었으나 이들 가족은 현실을 원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신실하게 살아 왔다. 그러다가 만년에 딸 방주를 얻었지만, 이내 아내를 잃고는 혼자서 고생스럽게 방주를 키운다. 이후 가난하지만 화목한 가정 속에서 방주가 행복하게 성장한 모습이 자세하게 그려지고 있다.

65 三歲了語音	세 살 때 말소리 또렷하고
66 四歲解方數	네 살 때 방향과 숫자를 알았으며,
67 五歲肩隣姪	다섯 살 때 이웃의 또래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여
68 鬪草渡口田	나루터 어귀의 밭에서 풀쌈놀이하면,
69 田頭穉子斑	밭머리엔 어린 아이들 옹기종기
70 麥苗青葱芋	보리싹이 푸르고 무성했네.
71 六歲識繅絲	여섯 살 때 실 뽑을 줄 알고
72 七歲通諺書	일곱 살 때 언문을 깨쳤으며,
73 八歲髮點漆	여덟 살 때 윤기 흐르는 까만 머리
74 學姊能自梳	언니를 본떠 스스로 빗을 줄 알았지.
(…)	(…)
85 萑葦十三四	어느덧 나이 열서너덧
86 幽閒儼成人	의젓하고 압전한 어른 되었네.
87 儀體盈萬方	단정한 몸가짐 만방으로 아름답도
88 艷態由天真	어여쁜 자태 하늘이 낸 듯하며
89 鍼線既通聖	바느질 솜씨 훌륭하고

13) 『심씨를 위해 지은 시』와 『초중경의 처를 위해 지은 시』를 비교 분석한 내용은 김수영, 앞의 논문에서 자세하다. 본고에서는 작품의 서사 분석에 필요한 경우에만 두 작품의 차이점을 간략하게 언급하고자 한다.

- |           |  |
|-----------|--|
| 90 紡績更無倫  | 길쌈 재주도 따를 이 없었네.                         |
| (…)       | (…)                                      |
| 95 莫以地貴賤  | 지체가 귀하고 천한 것으로                           |
| 96 看取人賢愚  | 어질고 어리석음 따지지 말지니,                        |
| 97 菡萏發泥淖  | 아름다운 연꽃 진흙에서 피어나고                        |
| 98 虻螭產溝渠  | 신령스런 용도 개천에서 난다네.                        |
| 99 食魚何必鮪  | 고기를 먹음에 어찌 반드시 방어라야 하겠는가.                |
| 100 齊姜亦不如 | 지체 높은 집안의 아녀자도 방주만은 못하다네. <sup>14)</sup> |

90구의 두 번째 단락 가운데 30구에 걸쳐 방주의 성장 과정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방주가 어려서부터 총명한 자질을 지닌 데다 친구들과 어울리며 구김살 없이 밝은 성격이었을 뿐만 아니라, 바느질 솜씨와 길쌈 재주까지 모두 갖춘 단아하고 현명한 여인으로 자란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그 다음에는 신분의 고하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며, 미천한 신분이지만 지체 높은 사대부의 여인들보다 훨씬 현명하고 고귀한 자질을 지닌 인물이 방주임을 서술자의 목소리로 한 번 더 강조하고 있다. 이처럼 나이를 언급하며 주인공이 성장하는 과정을 묘사하는 것 역시 『초중경의 처를 위해 지은 시』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원작에서는 ‘열세 살에 베를 짜고, 열네 살에 옷 마름질 배웠으며, 열다섯에 공후를 연주하였고, 열여섯에 『시경』과 『서경』을 암송하였네[十三能織素, 十四學裁衣, 十五彈箏篴, 十六誦詩書].’라고 네 구절에 여주인공 유난지가 자신의 성장 과정을 직접 이야기한 것과 달리, 여기에서는 서술자의 목소리로 방주의 아름다운 용모, 단아하고 의젓한 몸가짐, 지혜와 현명함을 등 어린 시절부터 성년이 되기까지의 과정을 순차적으로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다.

『심씨를 위해 지은 시』는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작품의 제목, 도입부, 여주인공 소개 형식, 남녀의 결혼 생활을 다룬 내용 등에서 『초중경의 처를 위해 지은 시』와 유사한 면모를 보여 준다. 이 뿐만 아니라 『초중경의 처를 위해 지은 시』에서 등장인물의 호칭을 아모(阿母, 초중경의 어머니), 부리

14) 食魚何必鮪, 齊姜亦不如: 두 구는 『시경』 『陣風』 『衡門』의 “어찌 고기를 먹음에 반드시 하수의 방어라야 하리오? 어찌 아내를 얻음에 반드시 제나라의 강씨라야 하리오[豈其食魚, 必河之鮪? 豈其取妻, 必齊之姜?]”에서 가져온 표현이다.

(府吏, 초중경), 신부(新婦, 유난지)로 설정한 것처럼 아부(阿父, 방주의 아버지), 파충(把摠, 장원경의 아버지), 방주(蚌珠)로 설정한 것 역시 원작을 염두에 둔 것이다.<sup>15)</sup> 그러나 작품의 서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세 번째 단락에서부터 작품은 「초중경의 처를 위해 지은 시」의 서사에서 벗어나 완전한 재창작이 이루어진다.

제109구부터 제218구까지 110구에 이르는 세 번째 단락에서는 작품의 보조적 인물인 장 파충이 등장하고, 그가 방주를 만나는 장면을 그리고 있다.

127 把摠從北來	북쪽에서 내려온 파충 한 사람
128 意氣凌青天	의기가 푸른 하늘보다 드높네.
(…)	(…)
146 娘子平安不	“낭자 안녕하시오?
147 長程舖火傘	먼 여정에 피약별 내리쬐고
148 赤雲盪魚然	구름도 이글이글 끓어
149 慙愧行路人	괴롭게 길 가는 이 사람
150 中啜慘無顏	더위 먹어 남 보기 부끄럽구려.
151 申乞小娘子	부탁하오니 낭자,
152 勺水沃喉澣	물 한 그릇 떠서 마른 목 축여 주시오.”
153 娘子聞此言	방주가 이 말 듣고
154 磬折齊且肅	공손하게 허리 굽혀 인사하였네.
(…)	(…)
161 盛取清水歸	맑은 물 담아 돌아와
162 長跪擊進之	끓어 앉아 공손하게 물을 올렸네.
163 把摠見敬容	파충이 방주의 공경한 모습 보고
164 不忍親自持	차마 선뜻 손 내밀고 받을 수 없어
165 逡巡亦長跪	머뭇거리면서 끓어 앉아
166 拱手聽所爲	손을 모으고 방주가 하는 대로 두니,
167 娘子識此意	방주가 그 마음 알아차리고

15) 허준구는 작중 인물을 벼슬 이름, 구슬 이름, 호칭으로 설정한 것에 대해 계층의 진행으로 써 인물을 설정한 것이라 하였는데, 이보다는 원작의 인물 설정 방식을 차용한 것이라 생각된다. 허준구, 앞의 논문, 37~38면.

168 謾然斂羞眉	수줍은 낯빛을 거두고는
169 大人上道客	“어르신은 길 가는 손님으로
170 造次寧失儀	잠시라도 어찌 예의를 잊겠습니까마는
171 倉卒野中禮	갑작스레 들판에서 차리는 예절
172 安得如度焉	어찌 법도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173 脫畧細節文	세세한 예법은 생각마시고
174 大人且尊便	어르신 편한 대로 하시옵소서.”

장 파충이 한여름 긴 여정으로 지쳐가던 중 시냇가에서 빨래를 하던 방주에게 물 한 그릇을 부탁하고, 공손하게 부탁을 들어주는 방주의 모습이 나타난다. 여기에서도 서술자는 장 파충의 부탁을 들어주는 방주의 공손하고 의젓한 자태를 보여주는 데 힘을 쏟고 있다. 특히 ‘남녀가 직접 물건을 주고받지 않는[男女不親授受]’ 유교의 예법을 잘 알고 있으며, 상황에 맞게 예를 행하려 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방주의 현명함을 인상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하겠다.

한편 작품에 등장하는 ‘파충’은 조선 시대 각 군영에 두었던 종4품 무관 벼슬의 직명인데, 파충은 하번(下番)의 향군(鄉軍)을 훈련시키고 군비상태를 순시·점검하면서, 유사시에 이들을 이끌고 참전하는 임무를 맡았다. 작품에 등장하는 파충 벼슬의 장씨 성을 가진 인물은 실존 인물이기도 하다. 장 파충은 김려가 부령에서 유배 생활을 할 때 만난 장현령(張玄齡)이라는 인물로 추정되는데, 그는 김려보다 앞선 시기 부령에서 유배 생활을 했던 원교(員嶠) 이광사(李匡師, 1705~1777)의 문인이었다. 김려는 『사유악부(思牖樂府)』에서 속세에 연연하지 않는 기개와 스승을 공경히 섬기는 장현령의 면모를 높이 평가하였으며, 『장현령전(張玄齡傳)』을 창작하기도 하였다.<sup>16)</sup>

제219구부터 제352구까지 134구에 이르는 네 번째 단락에서는 방주의 인물됨을 보고 감격한 장 파충이 직접 방주의 집을 찾고, 방주의 아버지와

16) 허준구, 앞의 논문, 27~28면 참조. 시의 원문은 “問汝何所思? 所思北海湄. 氣岸堂堂張把摠, 眼看俗物如蟻蠅. 案皮圓嶠千軸詩, 朝夕吟哦咏歎之. 跣坐數衽若對越, 張也眞能信其師. 自言一見圓嶠後, 泰山之外皆培塿. 擠井投石者誰子, 薄俗滔滔顏獨厚.”이고, 여기에 “把摠名玄齡, 字後喬, 員嶠門人. 妹爲員嶠副室. 余別有「張玄齡傳」及「張愛愛詩」.”라는 주석이 있다.

방주에게 저녁을 대접 받는 모습이 그려진다.

227 把摠望見之	파충이 멀리서 바라보고
228 便卽驅馬去	곧바로 말을 몰아 찾아갔네.
(…)	(…)
273 辛苦道路色	“이 더위에 길을 가는 나그네도 괴로워
274 人馬并飢疲	사람도 말도 모두 굶주리고 지쳤으니,
275 翹薪薄刈楚	큼직한 뿔나무를 얼른 베어다
276 夕飯兼速炊	저녁밥을 얼른 지어 내오소.”
(…)	(…)
345 把摠未下箸	파충은 젓가락을 들기도 전에
346 感激心內意	마음속으로 몹시 감격하였네.
347 華彩倏媚眼	알록달록 빛깔이 눈길을 끌고
348 珍臭已觸鼻	진수성찬 냄새가 코를 찌르네.
349 婦人百行要	부인네들 갖추어야할 덕목
350 先從酒食議	그 가운데 음식 솜씨 첫째라는데
351 饌品旣如此	음식 솜씨가 이리 뛰어나니
352 不須問甚事	다른 일은 물을 필요가 없네.

사대부가의 인물이 최하층민인 백정의 집에 방문하고 그와 더불어 상을 마주하여 함께 식사를 하는 등의 설정은 그 자체만으로도 몹시 파격적이다. 이 부분에서는 이전까지 서술자의 묘사로 그려지는 데 머물러 있던 방주 아버지가 직접 목소리를 내며 장 파충과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나타난다. 장 파충의 방문에 방주 아버지는 황공하고 송구스러워하며 어쩔 줄 몰라 하다가, 방주와 함께 정성스레 음식을 차려 저녁을 대접한다. 장 파충은 앞서 방주의 고운 용모와 단아한 태도에 감탄한 데서 더 나아가 그가 아녀자가 지녀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을 지닌 데 다시 놀라면서, 방주가 범상치 않은 인물임을 확신하게 된다.

제353구부터 제450구까지 98구에 이르는 다섯 번째 단락은 이 작품의 핵심부이다. 여기에서 장 파충은 방주의 아버지에게 자신의 아들과 방주를 혼인시키자는 파격적인 청을 한다.

- |           |                             |
|-----------|-----------------------------|
| 377 把摠嘻嘻道 | 과충이 너그러이 웃으며 말하기를,          |
| 378 過恭殊非禮 | “지나친 공손은 예가 아니라오.           |
| 379 義孚皆朋舊 | 의에 신뢰가 생기면 모두 친구요           |
| 380 情深卽兄弟 | 정이 깊어지면 형제인 것이니,            |
| 381 誰謂天公意 | 누가 말했소? 하늘이                 |
| 382 以茲限級陞 | 이것으로 계급을 구분한다고.”            |
| (…)       | (…)                         |
| 393 農家有美男 | “우리집엔 젊은 사내가 있고             |
| 394 君家有好女 | 그대의 집엔 어여쁜 아가씨가 있소.         |
| 395 男大必迎室 | 사내가 성장하면 반드시 장가를 들고         |
| 396 女長必迎夫 | 처녀가 성장하면 반드시 시집을 가니,        |
| 397 標梅其實七 | 시집 장가 가는 것도 때가 있는 법         |
| 398 良時安可踰 | 좋은 때를 어찌 넘길 수 있겠소?          |
| 399 願君勿蕪持 | 바라건대 당신은 가만히만 있지 말고         |
| 400 言下當肯俞 | 좋은 대답 들려주소.”                |
| 401 主人聞此言 | 주인이 이 말을 듣고                 |
| 402 臆塞心膽愴 | 가슴이 막히고 마음이 답답하여            |
| 403 如得父母名 | 부모의 이름을 들은 듯 <sup>17)</sup> |
| 404 可聞難可謂 | 듣기는 했으나 말하기 어렵네.            |
| 405 小屠雖迷劣 | “미친한 백정이 비록 어리석지만           |
| 406 亦能辨涇渭 | 그래도 옳고 그름은 분별할 줄 압니다.       |
| 407 芒屨愛同經 | 짚신도 제 날이 좋고                 |
| 408 麕布愛同緯 | 삼베도 제 올이 좋은 법입니다.           |
| 409 由來下賤者 | 예로부터 천한 놈 중에                |
| 410 先頭數白丁 | 백정이 으뜸이니                    |
| 411 人奴尙不如 | 남의 집 종보다도 못한 신세요            |
| 412 倡優反爲榮 | 광대는 오히려 영화로운 처지입니다.         |
| 413 霄壤未足比 | 하늘과 땅 같은 차이 견줄 데 없으니        |
| 414 議論豈敢期 | 의논한 말 어찌 감히 기약하겠습니까?        |

17) 如得父母名: 『후한서』 『마원열전』의 “馬援兄子嚴敦, 並喜譏議而通輕俠客, 援在交趾, 還書誡之曰: ‘吾欲汝曹聞人過失, 如聞父母之名, 耳可得聞, 口不可得言也.’”에 출처를 둔 표현으로, 삼가고 두려워하듯 하는 태도와 행동을 가리킨다.

장 파총이 자신의 아들과 방주를 혼인시키자고 하자, 방주 아버지는 하늘과 땅 같은 신분의 차이로는 감히 기약할 수 없는 일이라고 대답한다. 이 다음 구절에서는 장 파총이 신분이나 지체는 어쩔 수 없이 나뉘게 된 것이고, 그것으로 사람을 평가할 수는 없다며 방주 아버지를 부드럽게 설득하는 장면이 이어지고 있다. 이 부분에는 ‘계급을 따지지 않는 수평적 태도의 양반’과 ‘계급 차이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수직적 태도의 천민’의 모습을 역설적으로 표현하는 한편, 빈부나 계급을 뛰어넘어 ‘사람’ 그 자체를 중요시해야 한다는 작자의 사상을 설득력 있게 보여주고 있다.

제451구부터 제704구까지 254구에 이르는 여섯 번째 단락은 현재에서 과거로 시점을 옮겨, 서술자가 장 파총이 살아온 인생을 자세히 그려낸 부분이다. 장 파총은 대대로 명문가의 후손이었지만 젊어서 우환을 당해 떠돌이 신세로 고생스럽게 지내다가, 중년에 이르러서는 몸소 고기를 잡아 장사를 하며 살아간다. 떠돌이 신세로 곳곳을 유랑하면서 서민들의 참상을 목도하기도 하고 자신 또한 죽을 고비를 몇 번이나 넘겼던, 지난했던 삶의 역정이 매우 사실적이고 자세하게 그려져 있다.

현재 살펴볼 수 있는 작품의 모습은 여기까지이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 작품은 여섯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단락은 작품의 전체적인 주제를 암시하는 도입부이고, 두 번째 단락부터 다섯 번째 단락까지는 현재의 시점에서 인물을 소개하고 이들 인물을 중심으로 ‘양반과 천민의 결혼’이라는 서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핵심부이며, 여섯 번째 단락은 장 파총의 과거를 회상하는 부분으로서 과거 시점으로 서술된 ‘내부 이야기’를 이루고 있다. 특히 이 부분은 비참한 서민상을 그들의 목소리로 표현하는 ‘이중적 액자 구성’을 취하고 있는데, 이로써 장 파총의 지난했던 삶과 당시 서민들의 고달팠던 생활상이 더욱 실감나게 전달될 수 있었다. 아울러 작품에 ‘진지(進支)’, ‘팔자(八字)’, ‘나으리(進賜)<sup>18)</sup>, ‘사또(使道)와 같은 조선식 한자어 표현이나, ‘구리개(銅街)’, ‘용강(龍江)’, ‘양양(襄陽)’, ‘낙산(洛山)’과 같은 조선의 지명을 과감하게 구사함으로써 작품의 사실성을 높이고 있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18) 進賜: ‘나으리’, ‘나리’를 뜻하는 이두식 표현이다. 進의 뜻인 ‘나아, 나’와 賜에서 뒷부분 易의 음인 ‘이’를 합쳐서 읽는다.

### III. '장 파총' 인물 분석

#### 1. 신분과 계급을 초월한 개성적 인물

『심씨를 위해 지은 시』에서 장 파총은 1)처음 등장하는 장면, 2)방주에게 물 한 바가지를 부탁하고 물을 마시는 장면, 2)방주의 아름답고 공경스러운 태도에 감탄한 후 방주의 집을 찾는 장면, 3)방주네 집에서 저녁 대접을 받고 방주가 부덕(婦德)을 갖추었다며 거듭 감탄하는 장면, 4)방주아버지에게 방주와 아들의 혼인을 제안하는 장면, 5)장 파총의 과거가 회상되는 장면, 모두 다섯 장면에 등장한다. 먼저 장 파총이 처음 작품에 등장하는 장면을 제시한다.

127 把摠從北來	북쪽에서 내려온 파총 한 사람
128 意氣凌青天	의기가 푸른 하늘보다 드높네.
129 金鞍繡障泥	황금빛 안장에 수놓은 말다래
130 寶馬鐵連錢	검은 반점 <sup>19)</sup> 의 준마 탔네.
131 轟雷殷四蹄	우레처럼 울리는 말발굽 소리
132 高舉紫遊韁	말고삐를 높이 추켜든 모습
133 揮鞭若奔電	번개처럼 채찍을 휘두르니
134 燦燦爛輝光	번쩍번쩍 빛이 번뜩이네.
135 耽羅細量筵	양태가 가느다란 제주도 잣에
136 宜陽縹紵袍	의양 모시로 지은 도포를 입고
137 髻餘白玉圈	귀 밑에는 백옥관자 늘어 붙이고
138 腰橫紅錦條	허리에는 붉은 비단 실띠 둘렀네.
139 身材九尺強	구척이 넘는 건장한 몸
140 簪簪眼彩揚	눈빛도 의기양양하고
141 爲人潔白皙	모습이 깨끗하고 흰칠한데
142 勒鬚微老蒼	구레나룻 희끗희끗 하네.

이 장면에서 그는 파총 벼슬을 맡은 용맹스럽고 깨끗한 무관의 모습으로

19) 검은 반점: 원문은 '鐵連錢'인데, 돈 모양의 검은 斑點이 있는 말을 말한다. 『盧照鄰 長安古意詩』

등장한다. 계급이 높지 않은 변방 지역의 한직(閑職)을 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품 내에서는 방주의 가족들이 소박하게 그려진 것과 극적으로 대비될 만큼 화려하게 묘사되고 있다. 방주에게 물을 부탁하고 물을 받는 두 번째 장면에서도 장 파충은 유교적 예의범절 때문에 이를 손수 받지 못하는 사대부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방주의 인간됨을 한눈에 알아보고 어떤 지체 높은 아녀자라도 방주에게는 비하지 못할 것이라 여기는 내면 묘사를 통해, 그가 내면적 조건을 중요시하는 편견 없는 인물이라는 점이 엿보이기도 한다. 그의 이러한 면모는 이제 직접 방주의 집을 찾는 적극적인 행동으로 이어진다.

친민층인 백정의 집에 장 파충이 찾아오자 황공하여 어쩔 줄 몰라 하는 방주아버지에게 장 파충은 “나 또한 세상 풍과 겪은 사람인지라 세상사를 소상히 알고 있소. 사해 사람 모두가 한 형제인데 겸양이 너무 지나치오. 내 이미 여기에 왔으니 어찌 다시 거리끼는 마음 두겠소[老夫涉世人, 凡幹熟消詳. 四海皆同胞, 謙讓太過當. 老夫既來此, 那復置嫌疑?]"라며 안심시키기도 하고, 방주 아버지가 식사 대접을 할 만한 그릇이 없음을 송구스러워 하자, “우리 모두 하늘 아래 살아가니 하늘이 부어해주신 것 고르다오. 사발이나 대접이나 가릴 것 없으니, 함께 식사하는 데 어찌 거리낄 것 있겠소[等是頂天流, 蒼穹賦與敦. 不揀鉢與盂, 寧嫌共飯飡?]"라며 너그러운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이 부분에서 장 파충은 귀천과 신분으로 구분하지 않고 ‘사람’ 그 자체를 바라보는 따스하고 너그러운 인물로 그려진다.

정성스레 차린 저녁을 대접 받은 장 파충은 아름다운 외모, 덕스러운 자태, 공경스러운 태도뿐만 아니라 아녀자의 덕목 가운데 중요하게 손꼽히는 음식 솜씨까지 겸비한 방주의 사람됨을 확인한 후, 한밤중 고요한 때를 기다렸다가 방주 아버지에게 자신의 아들과 방주를 결혼시키자는 제안을 한다. 이 말을 듣고 차라리 곤장을 쳐서 죄를 다스려달라는 방주의 아버지에게 장 파충은 다음과 같이 말을 한다.

423 貴者承祖蔭 “귀한 자는 조상의 음덕을 물려받은 것이고

424 賤者稟薄祿 천한 자는 복을 못 탄 것이라오.

425 網緼化醇醪 천지가 만물을 생성하는 이치<sup>20)</sup>

426 均齊元不黷	고르고 가지런하여 본디 치우침이 없거늘
427 爭奈缺陷界	어찌하여 이 세계에는 흠이 생겨
428 較似阿鼻獄	아비옥 <sup>21)</sup> 과 같이 되었는데.
429 不幸屠市翁	불행히도 백정이 된 그대는
430 手劈禽獸肉	짐승의 고기를 손수 가르는구려.
431 君子安所蹈	군자는 처한 바를 편안히 여기지만
432 小人倖苟免	소인은 요행으로 구차하게 불행을 면하니,
433 寧知爾鼎俎	어찌 알겠소? 그대의 푸줏간 일이
434 不羨我軒冕	나의 벼슬살이보다 더 좋을는지.
435 老夫賦性迂	이 늙은이는 타고난 성품이 오활하여
436 耻隨流俗奔	부끄럽게 시속을 따라 살아간다오.
437 緣乖晉秦讎	인연이 어긋나면 이웃도 원수가 되고
438 誼合胡粵昏	마음이 맞으면 오랑캐라도 혼인을 맺으니
439 惠好姻親約	우리들 사이 좋게 사든 맺는 데에는
440 端的片言存	말 한 마디 약속이면 된다오.
441 貧富本不問	빈부를 본디 물을 것 없는데
442 地闊誰敢論	지체를 다시 논할 것 있겠는가.
443 將來窮與達	훗날 잘 되고 못 되고는
444 八字所關係	팔자에 매인 것이라오.
445 百中當身一	일당백의 뛰어난 자질을 지녔으니
446 餘外復何計	나머지야 다시 무얼 따지겠소?”

작품 전체 가운데 장 파충의 생각이 가장 확장되어 자세히 나타나는 부분이다. 장 파충은 계급과 지체로 귀천을 따지는 신분제 사회의 가치관에 얽매이지 않고, 하늘이 공평하게 세상을 만들었지만 지금 세계에 흠이 생겨 그 가운데 박한 복을 받은 사람이 천한 일을 하게 된 것뿐이라고 설명한다. 또한 벼슬살이를 하는 것은 구차하게 불행을 면한 것이며, 세속의 부귀와 이익을 좇지 않는 천한 일을 하며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군자의

20) 網繼化醇理: 『주역』, 『계사전 하』 제5장의 “천지의 기운이 얽히고 설킴에 만물이 화하여 엉기고, 남녀가 정을 맺음에 만물이 화생한다.[天地網繼, 萬物化醇, 男女構精, 萬物化生.]”의 구절에서 가져온 표현이다. 『본의』에 ‘網繼, 交密之狀; 醇, 謂厚而凝也.’라 하였다.

21) 아비옥은 불가에서 이르는 八熱地獄의 하나로, 죽은 후 이곳에 가면 끊임없이 지독한 고통을 받는다고 한다.

삶에 가까운 것이라는 발상의 전환을 보여주기까지 한다.

사실 ‘사해가 모두 한 동포[四海皆同胞]’라는 생각은 동양의 오래된 유교적 전통에서 말미암은 것이다. 『주역』 『설괘전(說卦傳)』의 천지를 부모로 삼는다는 인식<sup>22)</sup>을 바탕으로 하여, 송(宋)의 장재(張載)는 『서명(西銘)』에서 “건을 아버지라 칭하고 곤을 어머니라 칭하니, 내 이 작은 몸이 천지의 중간에 섞여 있도다. 그러므로 천지의 사이에 가득한 것[기운]은 나의 형체가 되었고, 천지의 장수[이치]는 나의 성(性)이 되었으니, 백성들은 나의 동포요, 만물은 나와 더불어 있는 것이다(乾稱父, 坤稱母, 予茲藐焉, 乃混然中處. 故天地之塞, 吾其體, 天地之帥, 吾其性, 民吾同胞, 物吾與也).”라 하였다. 이후로 이 ‘사해동포 사상’은 성리학 체계 내에서 하나의 주요 사상으로 자리 잡았으며, 이러한 사상을 조선 문인들 역시 계속해서 설파한 바 있다.<sup>23)</sup> 그러다가 18세기에 이르러 사회 전반에 고착화된 신분 차별에 대한 사회적 반감이 극성하게 되면서 이 사상은 신분 차별 문제를 극복하고자 하는 하나의 대응 논리로서 역할을 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작품 안의 ‘사해가 모두 한 동포’라는 구절을 근거로 장 파충을 근대적인 평등사상을 선취한 인물로 평가하는 것<sup>24)</sup>은 이미 마련해 놓은 작가의 상(像)에 압도된 탓에 실상보다 지나치게 의미를 부여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 작품에서 장 파충이 주목되는 것은 계급과 신분을 뛰어넘는 의식을 ‘몸소 실천’하는 인물이라는 데 있다. 다만 태어났을 때 복을 타고나지 못했기 때문에 천한 신분으로 사는 것뿐이라는 그의 말을 보건대, 그는 신분제로 귀천이 나뉘는 세상 자체를 문제 삼기보다는 신분제 사회 안에서 그 자신이 사대부 계급임에도 불구하고, 신분과 계급에 속박되지 않고 천민인 방주에게 혼인을 청하고, 방주 아버지를 설득하는 점에서 그만의 개성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인간형은 전(傳), 한시, 가사, 사설시조, 소설 등 장르를 막론하고 조선 후기의 문학 작품에 등장하는 다양

22) 『설괘전』에 “건은 하늘이므로 부라 칭하고, 곤은 땅이므로 모라 칭한다(乾天也, 故稱乎父; 坤地也, 故稱乎母).”라고 하였다.

23) 張維, 『谿谷集』 권3, 『壬戌同庚稷帖跋』, “自子夏氏有四海兄弟之語, 而後儒推明其義曰民吾同胞”; 李漢, 『星湖全集』 권1, 『反絕交詩』, “賦天均爲人, 四海乃兄弟.”; 洪大容, 『湛軒書』 내집 권3, 『有懷遠人』, “天地大父母, 四海同弟兄.”; 『次孫蓉洲有義寄秋庵詩韻仍贈蓉洲』, “乾坤爲父母, 四海同廊廡.”

24) 허준구, 앞의 논문, 40면.

한 인간 군상 가운데에서도 찾아보기 힘들다. 신분이나 계급의 장벽을 뛰어넘어 천민들을 사대부와 같은 ‘사람’으로 바라보고 이들을 포용하며, 똑같은 시선으로 그들을 마주하는 인물로서 장 파총이 설득력 있고 인상적인 방식으로 제시되고, 이러한 인물의 형상이 뚜렷하게 창출됨으로써 작품의 주제 의식이 한층 더 강화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인물을 작품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한편 작품 속에 드러난 작가의 의식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작품의 후반부가 결락되어 확인할 수는 없지만, 바로 ‘방주와 장원경의 결혼 생활이 비극적으로 처리된 것’에서 살펴볼 수 있다. 김려가 작품의 서사를 수습하기 어려워 작품의 후반부를 창작하지 못했을 수 있다는 의견이 있으나,<sup>25)</sup> 이에 대한 옳고 그름을 차치하더라도 작품의 서두 부분을 보면 애초에 김려는 이 작품에 대해 비극적 결말을 정해두고 있었음이 분명하다. 이것은 계급과 신분제적 질서를 초월하여 수평적인 시선으로 사람을 대하는 장 파총이라는 개성적 인물로 말미암아 천민과의 결혼이 성사되기는 하였지만 결국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혀 불행한 일생을 살게 된다는 내용으로 결말을 처리함으로써, 작가의 현실 인식에 있어 일정 부분 한계를 노정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된다.<sup>26)</sup>

## 2. 작자의 삶이 투영된 불우지사(不遇之士)의 한 전형

등장에서부터 방주 아버지에게 혼담을 제안하는 부분에 이르기까지 장 파총은 계급과 신분을 뛰어 넘어 동질적인 시선으로 사람을 바라보는 개성적 인물의 면모를 보여준다. 이후 작품은 현재적 시점에서 장 파총의 지난 삶을 보여주는 과거의 시점으로 전환되는데, 이 부분은 장 파총이 이처럼 엄숙하고 교조적인 계급적 질서에서 벗어나 평등적인 시선을 갖춘 인물이 될 수 있었음을 유기적으로 설명해주는 역할을 한다. 장 파총의 인생 역정

25) 임형택, 앞의 책, 361면 작품 해설.

26) 이러한 면모는 김려의 傳 작품집인 『丹良稗史』에도 드러난다. 『단량패사』에 실려 있는 8편의 人物傳은 조선 후기 사회의 제도순들을 예리하게 포착하고 있으면서도 이에 대한 대안으로는 사대부와 서민들의 내면적 도덕성을 촉구하는 것에만 그치고 있다. 다시 말해 『단량패사』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고립적으로 존재하는 특출한 개인으로만 그려져 있는데, 이들은 비극적 현실에 맞닥뜨려서는 여지없이 무너지고 마는 나약한 인물에 다름 아니다. 홍진옥, 『김려의 『丹良稗史』 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2014, 66면 참조.

(歷程)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뉜다.

- ① 제451구~제478구: 옥산(玉山)의 양반가에서 태어난 장 파충은 젊은 시절 우환을 당해 떠돌이 생활을 하며 빈곤하게 지냄.
- ② 제479구~제704구: 중년 시절부터 고기 장사를 하며 용강, 양양 등의 바닷가 등지에서 어민들과 함께 생활함.

이 뒤의 결락된 부분은 장 파충이 지난했던 중년 시절을 거쳐 일상적인 생활을 회복한 후 파충 벼슬에 오르기까지의 과정을 보여주고, 다시 현재의 시점으로 돌아오는 구성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먼저 ①번 단락을 살펴보면 장 파충은 대대로 명문 양반가의 자제였으나, 무슨 연유 때문인지 젊은 시절 우환을 만나고 부모님을 여의어 홀로 떠돌이 생활을 시작한다. 직접 낫을 갈고 장작을 패 겨우 생활을 이어 나가고, 구리개나 남대문을 오가며 쪽잠을 청하면서 때때로 슬픈 마음이 들어 눈물을 흘리기도 하는 모습을 보여 준다. 이 부분에는 고달프고 험난했던 그의 젊은 시절이 매우 인상적으로 압축되어 나타난다. 다음으로 ②단락에서 떠돌이 생활을 하던 장 파충은 중년에 이르러 철마다 고기가 많이 잡히는 어촌 등지로 옮겨 다니면서 고기잡이와 생선 장사를 시작한다.

- 495 三月載石首 3월에 조기를 신고서
- 496 舸舫冒風惡 모진 바람 무릅쓰고 배 몰아가면
- 497 燕灘浪頭白 연평 바다에 파도가 하얗게 일어
- 498 岌於瓦官閣 기와 지붕마루보다 높이 솟았네.
- 499 四月販鱸子 4월에는 도미를 팔고
- 500 五月販蹲鴟 5월에는 준치를 파니,
- 501 單尾州葉蓐 한 마리에는 삼십 푼이요
- 502 兩尾六錢奇 두 마리에는 육전 남짓이니
- 503 一擔三十貫 한 짐에 삼십 꿰미면
- 504 人力便相宜 한 사람 힘으로 적당하다네.
- 505 輓路勝似馬 수레로 운반하면 말보다 유리하니
- 506 馱價迥不同 태가가 아주 절감되어
- 507 假使折本了 만약 본전을 제하더라도

- 508 盤纏出其中 노잣돈이 나온다네.  
 509 葦條物所有 갈대줄기 저마다 타고난 성질 있어  
 510 羸縮不更費 남든 모자라든 값은 바뀌지 않으니,  
 511 肯落閭巷口 어찌 백성들 입에 들어가겠는가?  
 512 祗充卿相胃 다만 높은 벼슬아치들 배를 채울 뿐이네.

중년 시절 몸소 고기잡이를 하며 생선 장사를 하는 부분은 200여 구가 넘는 긴 편폭에 자세하게 그려지고 있다. 3월부터 10월까지 차례로 나누어 어떤 곳으로 옮겨 다니면서 어떤 고기를 잡고, 그 와중에 어떤 험난한 일을 겪게 되었는가가 생생하게 그려져 있다. 그 가운데에 장 파충이 어촌에서 만난 해녀들이 전복 따는 과정이 생동감 있게 묘사되기도 하고, 한 어촌 아낙의 고달픈 사연이 소개되기도 한다.

이처럼 양반가의 자제였던 장 파충이라는 인물이 젊은 시절부터 중년 시절에 이르기까지 불우하게 몰락해 가는 과정은 당대의 불우지사의 한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된다. 앞서 언급했듯 장 파충은 김려가 부령에서 유배 생활을 하던 시절 만난 인물이다. 그러나 작품에 그려진 장 파충의 인생을 살펴보면, 실제 인물인 장 파충의 모습보다는 작자인 김려의 경험이 상당 부분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먼저 장 파충이 대대로 명문가 집안의 자제였다가 젊은 시절 우환을 만나 떠돌이 생활을 한 것은, 김려가 인재로서 촉망받던 성균관 유생 시절 ‘강이천(姜彝天, 1768~1801)의 유언비어 사건’<sup>27)</sup>으로 갑작스레 유배를 가게 된 것과 유사하다. 김려는 이 사건에 연루되어 동학들끼리 모여 서학에 대해 이야기하고, 서해의 어떤 섬에 진인(眞人)이 있다는 말을 퍼뜨렸다는 죄목으로 한순간에 불온 인물로 전락하며 부령으로 유배를 가게 되는데, 이를 두고 김려는 ‘우환을 만났다[遇患]’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였다.<sup>28)</sup>

다음으로 장 파충이 중년 시절 어촌 등지로 옮겨 다니면서 고기잡이와

27) 강이천의 유언비어 사건에 대해서는 이미 선행연구에서 자세히 밝힌 바 있다. 방현아, 『중앙 강이천의 『한경사』 연구-18세기 서울의 도시적 양상의 형상화-』, 성균관대 석사논문, 1994, 11~16면. 여기에서 논자는 유언비어 사건은 시파와 벽의 정치싸움, 사회의 혼란한 유언비어, 서학의 유입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며, 김려는 그 와중에서 억울하게 유배당한 경우라고 하였다.

28) 『담정유고』 권7, 『題坎窟日記卷後』; 권9, 『題丹良稗史卷後』.

생선 장사를 했다는 설정은 김려가 유배지 진해에서 어가(漁家)에 더부살이를 하면서 직접 고기를 잡았던 것과 관련된다. 김려는 진해에서 6년 간 생활하는 동안 날마다 직접 배를 끌고 바다에 나가 고기를 잡았다. 이 과정에서 관찰한 특이한 어종에 대해 기록을 남기기도 했는데, 이것이 우리나라 최초의 어류 백과사전이라 할 수 있는 『우해이어보(牛海異魚譜)』이다. 『우해이어보』에는 어류의 명칭과 형태, 습성과 포획 방법 등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진해 지방의 다양한 풍속과 주민들의 생활상을 짚진하게 담아낸 49수의 한시 『우산잡곡(牛山雜曲)』이 함께 실려 있다. 장 파충이 고기를 잡으면서 겪었던 험난했던 일들과 해녀들이 전복을 따는 과정이 실감나게 묘사될 수 있었던 것은 김려 자신이 진해에서 직접 보고 느낀 경험을 그대로 담아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아울러 김려는 유배지에서 백성들의 어려운 처지를 직접 목도하고 백성들을 수탈하는 지배 계층의 횡포를 고발하기도 하였는데, 장 파충이 만난 어촌 아낙의 사연은 이러한 작가의 의식과 밀접하게 연관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557 沙干黑漁媪 모래사장에 어떤 어부의 아낙  
 558 咿嘍拜日哀 하늘을 바라보며 울면서 하는 말,  
 559 阿兒采鮑去 “우리 아들 전복 따러 바다로 나가  
 560 一句終不廻 열흘이 지나도 끝내 돌아오지 않았어요.  
 561 曩歲渠爺罷 몇 년 전엔 제 아버지 목숨을 잃고  
 562 去歲渠兄續 지난해에는 제 형이 뒤따라갔으니,  
 563 端爲水鬼餌 그들 모두 물귀신의 밥이 됐지만  
 564 豈關年命促 어찌 관가의 재촉 없었겠어요?  
 565 姓名填公簿 이름이 관청 장부에 한 번 오르면  
 566 逃躲亦維谷 아무리 피하려 해도 피할 수 없어요.  
 567 采者一箇鮑 전복 따는 자에게 전복 한 개  
 568 貧者千純穀 가난한 자에게는 천속의 곡식이건만,  
 569 啖者千箇鮑 전복 먹는 자에게 전복 천 개  
 570 富者一粒粟 부자의 한 톨 곡식에 불과해서,  
 571 輸來日堆積 실어 들어 날마다 쌓아두고는  
 572 充塞庖廚屋 부엌과 창고에 가득 채워  
 573 囓啗兼蹂躪 마음껏 먹고 먹어서

- 574 彭張羣奴腹 노복들까지 배 두드리지요.  
 575 海犬中夜吠 한밤중에 바다 마을 개가 짖으면  
 576 官差闌村茨 관가 아전 동네방네 쏟아져 나와  
 577 驅出衆蝨子 수많은 어부들을 몰아내다가  
 578 咆哮鞭朴之 무섭게 호통치고 매질하며,  
 579 使道茶啗床 ‘사또님 다담상 위에  
 580 生泡鬪兩次 생전복 오르지 못한 것이 벌써 두 끼이다.  
 581 赤憎彼蝨子 저 뱃놈들 몹시도 미우니,  
 582 冥頑似牛犢 막히고 미련하기 꼭 소 같구나.’  
 583 徵督星火急 바치라는 독촉이 성화와 같아  
 584 白挺如雨墜 빗발같이 곤장을칩니다.”  
 585 漁媪拊膺哭 어부의 아낙 가슴 치며 통곡하니  
 586 哭聲徹蒼天 울음소리 하늘가에 사무치네.

해마다 관가에 바쳐야 하는 공물로 인해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서럽게 호소하는 한 아낙의 이야기가 절절하게 토로되고 있다. 여기에서는 작품의 서술자나 아낙을 만난 장 파충의 목소리가 아닌 아낙의 목소리를 직접 삽입함으로써, 서민들의 비참한 생활상과 관가의 혹독한 수탈과 횡포를 좀 더 사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방주가 사는 마을을 김려의 아버지인 김재칠(金載七, 1737~1799)이 현감으로 지냈던 장계(長溪)<sup>29)</sup>로 설정한 것이나 장 파충이 어촌 등지를 옮겨 다니는 부분에서는 『적문협(赤門峽)』이라는 5행 14구의 한시<sup>30)</sup>를 그대로 실어 놓은 것을 보건대, 이 작품에 김려의 개인적 체험이 담겨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다시 말해 『심씨를 위해 지은 시』에서 명문가 집안의 사대부가 우환을 만나 떠돌이 생활을 하다가 직접 고기잡이를 하고, 노년에 다시 벼슬살이를 하게 된 파란만장한 인생 역정을 겪은 ‘장 파충’은 조선 후기 불우지사의 한 전형을 보여주는 인물이며, 장 파충의 인물을 형

29) 김려, 『담정유고』 권2, 『良城春嘯集』, 『黃城俚曲』, “五馬南風阜蓋飛, 銅章遙暎使君衣. 長溪華表今猶在, 焉問令威去不歸.(庚子, 吳夫人爲長水宰. 是歲春, 余妹婿李憲承公幹爲是邑. 長溪地名, 有龍湫華表)”

30) 이 작품은 김려의 『澗玄觀詩草』에 수록되어 있다. 『귀현관시초』는 김려가 진해로 이배된 1801년 이후에 창작한 시를 중심으로 엮은 것이며, 1801년 이전의 시는 7~8수가 수록되어 있다. 『담정유고』 권1, 『題澗玄觀卷後』.

상화하는 데에는 작가의 인생 경험이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보면 『심씨를 위해 지은 시』는 적어도 부령에서 유배 생활을 시작한 1797년 이후에 창작을 시작하여 진해 유배 시절의 경험을 반영하여 해배 이전에 완성한 작품일 것이다. 또한 부령 유배 시절 만난 장현령이라는 실존 인물을 중심으로 서사 구성을 기초하였으나, 장현령이라는 인물의 실제 모습을 바탕으로 하되 여기에 작자 김려의 삶을 형상화하여 대장편으로 엮은 작품이라 할 수 있다.

#### IV. 결론

본고는 조선 후기에 풍부한 성취를 이루었던 서사 한시 가운데, 양반과 천민의 결혼이라는 다소 과격적인 주제를 다룬 김려의 『심씨를 위해 지은 시』의 서사를 분석하고, ‘장 파충’이란 인물에 주목하여 인물이 보여주는 특징적 면모를 고찰하고자 하였다.

『심씨를 위해 지은 시』는 인간 자체를 바라보는 스스로의 가치 규범에 따라 행동하는 장 파충이 천민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고귀한 성품과 현명함을 지닌 방주를 만나, 그의 아들과 방주의 결혼을 제안하는 작품이다. 작품 전체의 서사는 결국 이 둘이 결혼하지만 방탕함을 일삼는 장 파충의 아들로 인해 방주의 결혼생활이 비극적인 결말을 맞는 내용이다. 작품의 서사와 주제에 있어 ‘장 파충’이라는 인물은 주목을 요한다. 장 파충은 하층 백성들을 연민과 동정의 시선으로 바라보았던 대다수의 인물 유형과 달리, 계급과 신분의 구분을 뛰어넘어 사람 그 자체를 바라보는 특출난 면모를 보여주는 개성적 인물이다. 또한 이러한 인물이 창출될 수 있었던 데에는, 10여 년의 유배 생활로 사대부 지식인이 아닌 일반 백성들과 함께 생활하며 그들과 동등한 입장에서 사람과 사람으로서 관계를 맺었던 작자 김려의 경험이 고스란히 반영되었던 것에 힘입은 바 크다. 방주의 아름다운 품성과 인간 됨됨이를 알아보는 안목, 그리고 그녀를 며느리로 선택하는 장 파충의 행동은 인간을 판단하는 어떤 가치 규범이나 잣대를 넘어 인간과 인간의

만남을 보여주는 새로운 인식을 보여주며, 이것이 바로 이 작품만이 지니는  
고유한 문예적 특징이라 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1. 자료

- 金鏞 編, 『薄庭叢書』, 통문관 소장, 학자원 영인본, 2014.  
金鏞, 『薄庭遺藁』, 서울대 규장각 소장; 한국고전번역원, 『韓國文集叢刊』 289.

### 2. 단행본

- 박혜숙 역, 『부령을 그리며-사유악부 선집』, 돌베개, 1996.  
오희복 역, 『글짓기 조심하소(조선후기 김려의 시와 글)』, 겨레고전문학선집12, 보리출판사, 2004.  
임형택, 『이조시대 서사시2』(개정판), 창비, 2013.  
민족문학사 연구소, 『북한의 우리문학사 인식』, 창작과 비평사, 1991.  
정홍교·박종원·류만, 『조선문학사개관1』, 사회과학출판사, 1986.

### 3. 논문

- 김경미, 「담정 시 연구」, 세종대 석사논문, 1985.  
김수영, 「김려의 <십씨를 위해 지은 시> 연구-〈공작동남비〉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국문학연구』 18, 국문학회, 2008, 133~165면.  
박준원, 「담정 김려시 연구」, 성균관대 석사논문, 1984.  
박혜숙, 「남성의 시각과 여성의 현실: 서사한시의 경우」, 『민족문학사연구』 9, 민족문학사학회, 1996, 28~54면.  
방현아, 「중암 강이천의 『한경사』 연구-18세기 서울의 도시적 양상의 형상화-」, 성균관대 석사논문, 1994.  
이신복, 「담정 김려 한시 연구」, 『東洋學』 18,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1988, 93~110면.  
허준구, 「김려의 「古詩爲張遠卿妻沈氏作」 연구」, 강원대 석사논문, 1992.  
홍진옥, 「김려의 『丹良稗史』 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2014.

## An Examination of Squad Leader Jang, a Supporting Character in “A Poem Composed for Lady Sim, Jang Won-gyeong’s Wife”

Hong, Jin-ok

After analyzing the narrative of “A Poem Composed for Lady Sim, Jang Won-gyeong’s Wife” (*Gasi ui Jang Won-gyeong Cheo Simssi Jek*), an epic poem that Gim Ryeo (1766-1821) created on the basis of his experience of ten-year-long exile in Buryeong and Jinhae, the present study examines the characteristics of Squad Leader Jang (Jang *Pachong*), a supporting figure who is given as much weight in the work as is Sim Bang-ju, the heroine.

Transmitted with the latter half missing, “A Poem Composed for Lady Sim” can be divided into six sections in terms of the narrative of the extant portion. As with the beginning of the ancient Chinese poem “A Peacock Flies to the Southeast” (*Kongque Dongnan Fei*) from the Han Dynasty (206 BC-220 AD), the first section is an introduction that uses the affective imagery (*xing*) technique presented in the ancient Chinese text *Classic of Poetry* (*Shijing*, 11c-7c BC) to imply the overall themes of the work. Introducing the character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present and depicting the process through which a marriage between a member of the scholar-gentry (*yangban*) and an outcaste (*cheonmin*) is achieved successfully, the second to the fifth sections constitute the key portion where the narrative develops in earnest. The sixth section, where Squad Leader Jang’s past is recollected, forms an internal story recounted from a past viewpoint. In particular, this section adopts a double frame structure where the plebeians describe their wretched lives in their own voices, which more vividly conveys both Squad Leader Jang’s life of hardships and the toilsome daily lives of the populace at the time. In addition, also noteworthy is the fact that the author heightens the realism of the work by boldly incorporating into it Sino-Korean expressions such as *jinji* (“meal”), *palja* (“fate”) *na’eni* (or *jinsa*; “lord”), and *satto* (or *sado*; “magistrate”) and Korean place names such as Gurigae

(or Dongga), Yonggang, Yang'yang, and Naksan.

Next, the present study seeks to examine Squad Leader Jang in terms of two aspects. First, Squad Leader Jang is unique from among characters in premodern Korean literary works in that he goes beyond social rank and class. A figure who transcends the barrier of rank and class, views outcastes as humans just like himself, a member of the scholar-gentry (*sadaebu*), accepts them, and treats them as equals, he is presented in the work in a persuasive and impressive manner. By thus clearly depicting Squad Leader Jang, the thematics of the poem is further strengthened. However, it is worth noting that, in seeking to conclude this work tragically, the author's perception of reality reveals certain limitations.

Next is the fact that Squad Leader Jang, while exhibiting the typical characteristics of a member of the scholar-gentry fallen on hard times, considerably reflects the life of Gim Ryeo himself. First, the setup that Squad Leader Jang, the son of a long-established family of distinction, becomes a wanderer in his youth due to misfortunes is similar to the fact that the author, a talented and promising student at the National Confucian Academy (*Seonggyun'gwan*), was suddenly exiled by the government due to the “groundless rumor incident” involving Gang Yi-cheon's (1768-1801), a Roman Catholic. In addition, the setup in the poem that Squad Leader Jang catches and sells fish for a livelihood in his middle age while moving from one fishing village to another is related to the fact that Gim Ryeo himself engaged in fishing while lodging at the home of a local fisherman during his exile in Jinhae. Moreover, the author establishes Janggye, where his father Gim Jae-chil (1737-1799) served as a lesser prefect (*byeon'gam*), as the village in which Bang-ju lives and includes in its entirety “The Red Gate Gorge” (*Jeongmunbyeop*), a classical Chinese poem in fourteen five-line stanzas, in the part where Squad Leader Jang moves from one fishing village to another. In other words, although the narrative structure of “A Poem Composed for Lady Sim” revolves around and focuses on Jang Hyeol-lyeong, a historical figure whom Gim Ryeo encountered during his exile in Buryeong, the poem can be seen as an epic that, while based on the actual words and deeds of this personage, portrays the author's own life.

keywords: Gim Ryeo, “A Poem Composed for Lady Sim, Jang Won-gyeong’s Wife,”  
Squad Leader Jang, Jang Hyeol-lyeong, Epic Chinese Poetry

접수일자: 2018. 3. 31.

심사기간: 2018. 4. 1.~2018. 5. 10.

게재결정: 2018. 5. 10.